**마을의 귀환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 오마이북)**

**콘크리트 도시에서 피어난 마을공동체,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다!**   
  
  
**외롭고 각박한 도시에서의 삶,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도시인의 삶은 점점 외롭고 불안하다. 가족은 흩어지고, 복지 정책은 믿을 수 없고, 일자리는 위태로우며, 사회적 관계망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숲,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혀 소통의 기회를 잃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삶,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마을공동체’를 주목하고 있다. 바야흐로 마을의 귀환이다!   
  
**서울과 잉글랜드의 도시공동체 26곳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다**   
이 책은 골목, 아파트, 시장 등 삶의 현장에서 공통의 가치를 위해 뜻을 모으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은 마을공동체에서 대안적 삶을 일군 사람들의 모습을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기록했다. 주민들의 자생력으로 커가는 서울의 풀뿌리 공동체를 보여주며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람, 행복, 고민거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영국 잉글랜드의 혁신적 공동체를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마을로 갈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준다. 두 나라의 마을 현장을 담은 1년여의 기록은 서로 기대고 보듬는 마을살이가 도시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해준다.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텃밭을 가꾸고, 도서관을 짓고……   
삶의 기쁨과 슬픔, 재능과 자원을 이웃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도시에 살며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의 도시공동체를 만들었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은 부모들은 육아, 교육, 취미생활을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었고, 재개발에 밀려나지 않으려는 절실함으로 똘똘 뭉친 골목 주민들은 힘을 합쳐 주거지를 재생시켰다. 소통에 목마른 아파트 주민들은 텃밭을 가꾸거나 자발적으로 동네 안전을 지키면서 두터운 관계를 형성했고, 마을 일꾼을 키우며 공유의 경제를 꿈꾸는 사람들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만들어냈다. 오염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아름다운 실천을 보여주는 마을도 있다. 이들은 모두가 함께 사는 마을에서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나누고 연대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출판사 서평)

**아크라 문서 (파울로 코엘료 / 문학동네)**

**다시 시작하라, 오늘이 네 삶의 첫날인 것처럼   
생의 한가운데 한 방울씩 떨어지는 기적 같은 삶의 지혜   
  
전 세계 1억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혼의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화제의 신작!**  
전 세계 168개국 78개 언어로 번역되어 1억 4천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 파울로 코엘료. 그가 『알레프』를 출간한 지 2년 만에 2012년 새로운 소설 『아크라 문서』로 다시 돌아왔다. 2010년 발표한 『알레프』가 코엘료 자신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오르게 했던 정체성의 위기에 관해 다루고 있다면, 신작 『아크라 문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결론들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파울로 코엘료는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크라 문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SNS를 통해 많은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거대한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존재가 쓸모없다고 여기며 꿈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두려움, 불안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영국의 고고학자 월터 윌킨슨은 이집트에서 고대 문서를 발견한다. 아랍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쓰인 이 ‘아크라 문서’에는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콥트인 현자와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파울로 코엘료는 광장에 모인 예루살렘 군중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한다. 전쟁으로 소멸되기 직전의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일상적인 질문들에 대해 현자가 들려주는 답변은 곧 코엘료가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통해 얻은 깊은 성찰의 결과이며, 그 자신이 전 세계 독자들과 간절히 나누고 싶어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크라 문서』는 혼돈의 시대에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적 같은 삶의 지혜이다.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 기적처럼 다가온 지혜의 목소리**   
  
1099년 7월, 기독교인, 유대인, 이슬람교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던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군이 공격을 감행한다. 적군의 침략이 당장 내일로 다가온 상황에 예루살렘 군중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광장에 모인다. ‘침략자들에 대한 설교를 또다시 들어야 하는가’라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콥트인 현자를 바라본다. 그런데 현자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전쟁에 관한 설교가 아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한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면서 저기 성 밖의 적군들과 그대들 내면의 두려움은 잊으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 대해, 그 안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후손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천년 후에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테니.”   
  
매일의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 쉽게 풀리지 않을 인생의 수수께끼…… 내일 아침이면 전쟁터로 나가거나 도시를 떠나야 할 사람들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 삶의 의미와 인생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묻는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진정한 진리를 갈구하며.   
  
“이 이야기를 말로 듣거나 글로 읽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찢겨,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테니.” (출판사 서평)

**플루토크라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 열린책들)**

**빈부 격차와 글로벌 신흥 갑부들의 성장에 관한 획기적인 고찰!**   
  
플루토크라트,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 나머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 세계 상위 0.1퍼센트 갑부들의 삶과 생각을 파헤치고 있는 이 책 『플루토크라트』는 이념을 초월한 신선한 시각으로 세계 경제의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고 그 정점에 오른 글로벌 슈퍼리치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오늘날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을 충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2년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이자 2013년 국제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뤄 대중의 이해에 기여한 세계 최고의 논픽션에 수여하는 《라이오넬 겔버》상 수상작.   
  
오늘날 글로벌 슈퍼엘리트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고, 점점 더 끼리끼리 뭉치며, 갈수록 동료 시민들과 동떨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편중이 극심해진 오늘날의 세계 경제 속에서 이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과 각종 경제 지표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이 매력적인 책에서 경제학과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글로벌 슈퍼엘리트들에 대한 지난 20여 년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엘리트들이 과거의 엘리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출판사 서평)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